

1. 현대인의 삶과 실천 윤리

- [21학년도 6월] 메타윤리학의 핵심과제는 경험적 연구를 통한 도덕성의 검증이다. (X)
- [21년 7월] 기술윤리학은 도덕적 추론의 타당성 분석을 주요 과제로 삼는다. (X)
- [20년 7월] 이론윤리학은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핵심 과제로 삼는다. (X)
- [19학년도 6월] 이론윤리학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규범적 원리를 정립해야 한다고 본다. (O)
- [19학년도 6월] 기술윤리학은 도덕적 관습 비교보다 윤리적 개념 분석을 중시한다. (X)
- [21년 3월] 규범윤리학은 선과 악이 무엇인지에 관해 탐구하는 것을 중시한다. (O)
- [24학년도 6월] 규범윤리학은 도덕적 담론에서 논리적 추론의 타당성 검증을 강조한다. (X)

- [22학년도 수능] 유교에서 인의 시작은 모든 사람에 대한 차별 없는 사랑이라고 본다. (X)
- [21년 4월] 불교에서는 자타불이를 깨달을 것을 강조한다. (O)
- [21년 4월] 불교에서는 고정된 자아를 확립하기 위해 자비심을 발휘할 것을 강조한다. (X)
- [21학년도 9월] 유교에서는 거경과 신독을 중시한다. (O)
- [22학년도 6월] 유교에서는 대도가 행해진 세상에서 어진 사람과 능력 있는 사람을 선발할 것을 주장한다. (O)
- [22학년도 6월] 유교에서는 자기 부모만을 부모로, 자기 자식만을 자식으로 여기지 않는 것을 강조한다. (O)
- [20년 4월] 유교에서는 무욕과 무지의 삶을 통해 인을 실현할 것을 강조한다. (X)
- [21학년도 6월] 유교와 도가는 모두 만물을 차별하지 말고 평등하게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. (X)
- [23학년도 6월] 불교에서는 정신에는 집착해도 물질에는 집착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. (X)
- [23학년도 수능] 도가는 친함이 있으면 어진 자가 아니고, 명성을 추구하며 참 된 자기를 잃으면 선비가 아니라고 본다. (O)

- [23학년도 수능] 도가는 자신을 구속하는 일체의 것을 잊어버리고 자유롭게 살 것을 강조한다. (O)
- [16학년도 6월] 불교는 사욕을 극복하고 예로 돌아가는 삶을 지향해야 한다고 본다. (X)
- [16학년도 6월] 불교에서는 선을 수행하는 것을 강조한다. (O)
- [16학년도 6월] 불교에서는 어짐과 의로움을 쌓아 자연의 순리를 따를 것을 주장한다. (X)
- [16학년도 6월] 불교에서는 지속적인 경전 공부를 통해 성인의 도를 이룰 것을 강조한다. (X)

- [21년 10월] 칸트는 자연적인 경향성 따라 정직해야 함을 강조한다. (X)
- [23년 3월]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선천적으로 지니고 있는 품성적인 덕을 길러야 한다고 주장한다. (X)
- [23년 3월] 칸트는 이성적 존재는 스스로 도덕법칙의 수립자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. (O)
- [21학년도 6월] 매킨타이어는 인간이 타고난 덕을 실천해야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본다. (X)
- [21학년도 6월] 매킨타이어는 덕을 사회적 실천을 통해 선을 이루는 데 필요한 성품이라고 본다. (O)
- [22년 3월] 매킨타이어는 덕을 관행에 내재한 선을 성취하게 하는 타고난 성품이라고 본다. (X)
- [18년 10월] 덕윤리는 자연적 감정에서 비롯된 행위도 도덕적 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. (O)
- [19학년도 6월] 요나스는 책임의 주체와 대상은 이성을 가진 존재로 한정된다고 본다. (X)
- [18학년도 수능] 담론윤리는 모든 당사자들은 보편화 가능한 행위 규범에 합의 할 수 있다고 본다. (O)
- [23학년도 수능]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 곧 옳고 그름에 대한 앎이라고 본다. (X) -> '행복이 옳고 그름에 대한 앎' = 소크라테스 / 아리스토텔레스 : + 실천

2. 생명과 윤리

- [20학년도 6월] 임신 중절을 반대하는 입장은 태아가 합리적, 자의식적 존재라고 본다. (X)
- [24학년도 6월] 불교에서 죽음은 오온의 해체이기 때문에 괴로움이 아니다. (X)
- [20년 3월] 도가는 인간이 자연적 본성에서 벗어나 삶과 죽음에 초연해야 한다고 본다. (X)
- [21년 3월] 플라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육체의 본성으로부터 순수하게 지켜서 영혼을 더럽히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. (O)
- [18년 7월] 에피쿠로스는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. (O)
- [22학년도 6월] 심폐사를 주장하는 입장은 뇌사가 죽음에 이르는 과도기적 상태라고 본다. (O)
- [22학년도 6월] 심폐사를 주장하는 입장은 무의미한 연명 치료가 인간 존엄성을 훼손한다고 본다. (X)
- [19년 10월] 싱어는 인간과 동일한 권리를 지닌 동물을 실험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. (X)
- [19년 10월] 싱어는 인간과 동물의 이익 관심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. (O)
- [20년 4월] 칸트는 동물 학대가 도덕성에 유익한 자연적 소질을 약화시킨다고 본다. (O)
- [20년 4월] 칸트는 동물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인간의 도덕적 의무라고 본다. (X)
- [21학년도 수능] 자유주의는 자율성의 원칙, 해악금지의 원칙 이외에 성행위의 도덕적 정당화에 필요한 추가 원칙은 없다고 본다. (O)
- [22학년도 10월] 보수주의 입장에서 성의 자기 결정권 존중은 성관계 정당화의 필수 조건이다. (O)
- [23년 10월] 보수주의에서는 부부 사이의 성적 관계만이 도덕적 평가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. (X)

- [23년 10월]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모두 사랑이 결부된 성적 관계가 도덕적인 경우가 있다고 본다. (O)
- [18학년도 6월] 헤겔은 가족이 부모와 자식이 결합된 인격적 공동체라고 본다. (O)
- [18학년도 6월] 헤겔은 어린 자녀를 부모가 간섭할 수 없는 개별적 존재라고 본다. (X)
- [18학년도 6월] 헤겔은 부부가 자신들의 자녀를 통해 진정한 사랑을 경험한다고 본다. (O)
- [18학년도 6월] 헤겔은 결혼이 남녀 간의 법적 계약이 아니라 애착으로 성립된다고 본다. (X)
- [19학년도 6월] 유교에서는 남녀가 부부의 연을 맺을 때 일정한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. (X)
- [20년 7월] 유교에서는 상경여빈의 예를 다하여 효가 완성된다고 본다. (X) -> 완성은 입신양명
- [20년 3월] 공자는 부부가 삶의 동반자로서 정조를 지켜야 하는 천륜 관계라고 본다. (X)
- [21년 3월] 유교에서는 자식이 자신의 몸을 온전히 보전함으로써 효가 완성된다고 본다. (X)
- [17학년도 9월] 유교에서 효는 양지의 마음으로 상황에 따라 적절히 실천하는 것이다. (O)
- [18년 10월] 유교에서 부부는 서로 사랑해야 하는 천륜의 관계이다. (X)
- [17년 7월] 유교에서 부부와 형제, 자매 모두 권면과 협력이 필요한 관계이다. (O)

3. 사회와 윤리

- [20년 10월] 맹자는 대인의 일이 있고 소인의 일이 있다고 본다. (O)
- [20년 10월] 맹자는 백성은 통치자가 인의를 상실해도 섬기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다. (X)
- [20년 10월] 맹자는 백성의 생산물 교환은 사익 추구로서 삼가야 할 행위라고 본다. (X)
- [18년 4월] 칼뱅은 직업이 절제와 금욕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행해야 할 직분이라고 본다. (O)
- [19년 7월] 칼뱅은 직업 노동은 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라고 본다. (O)
- [19년 7월] 칼뱅은 직업을 원죄에 대한 속죄의 의미로만 수행되어야 한다고 본다. (X)
- [21년 10월] 플라톤은 통치자가 좋음 자체를 모범으로 삼아 다스려야 한다고 본다. (O)
- [22년 4월] 맹자는 백성의 경제적 인정에 힘쓰는 것이 통치자의 역할이라고 본다. (O)
- [21년 3월] 마르크스는 노동의 본질은 자신의 잠재력을 계발하는 데 있다고 본다. (O)
- [22년 3월] 순자는 직업에 충실하면 본성을 회복하고 인격을 닦을 수 있다고 본다. (X)
- [23년 4월] 플라톤과 맹자는 사회적 직분이 개인의 능력과 선택을 존중해 정해졌다고 본다. (X)
- [20년 7월] 칼뱅은 직업을 신이 내린 명령이므로 귀천의 구별이 없어야 한다고 본다. (O)
- [20년 7월] 마르크스는 자본가와 노동자가 협력하여 노동 소외를 극복해야 한다고 본다. (X)
- [22년 7월] 맹자는 직업을 통한 일반 백성의 생계유지는 도덕적 삶의 기반이 된다고 본다. (O)
- [19년 3월] 칼뱅은 노동의 궁극적 목적이 부의 축적에 있다고 본다. (X)
- [21년 7월] 순자는 인위적인 규범으로 일을 나누어야 백성들의 다툼이 사라진다고 본다. (O)
- [21학년도 수능] 플라톤은 구성원의 역할이 분담되면 자연스럽게 이상적 국가가 실현된다고 본다. (X) -> 이후에 능력 발휘해야
- [24학년도 9월] 순자는 사회 구성원의 직분을 나누는 도덕적 기준이 존재한다고 본다. (O) -> 순자의 도덕적 기준 = 예

- [20학년도 9월] 프리드먼은 모두 기업이 모든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본다. (X)
- [20학년도 9월] 보겔은 기업이 공익의 증진을 본질적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. (X)
- [19년 10월] 프리드먼은 기업에 경제적 책임 이외에 법적 책임을 부과하면 안 된다고 본다. (X)
- [23년 7월] 정약용은 목민관이 절용을 실천하기 위해 엄치를 버려야 한다고 본다. (X)

- [20학년도 9월] 니부어는 개인과 사회의 최고의 도덕적 이상 간의 모순이 절대적이라고 본다. (X)
- [20학년도 9월] 니부어는 집단 간 관계는 각 집단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수용하여 수립된다고 본다. (X)
- [19학년도 9월] 니부어는 선의지가 정의 실현을 위한 비합리적 수단을 통제해야 한다고 본다. (O)
- [18학년도 수능] 니부어는 사회 구조가 개인 행위의 도덕성을 좌우할 수 있다고 본다. (O)
- [20년 3월] 니부어는 집단 간의 갈등이 개인의 도덕적인 문제로 환원될 수 있다고 본다. (X)
- [18년 7월] 니부어는 이타성을 사회가 지향할 최고의 도덕적 이상으로 본다. (X)
- [20년 10월] 니부어는 사회 정의 실현에 기여한 폭력도 본질적으로는 비도덕적이라고 본다. (X)
- [20년 10월] 니부어는 사회 갈등을 비폭력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해악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본다. (O)
- [18년 10월] 니부어는 정치적인 강제력을 통해서만 사회 갈등을 완화할 수 있다고 본다. (X)
- [19학년도 수능] 니부어는 최소한의 강제력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. (O)
- [19년 3월] 니부어는 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강제력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. (O)

- [16년 7월] 아리스토텔레스는 시민은 법 앞에 동등하게 대우 받아야 한다고 본다. (O)
- [16년 7월] 아리스토텔레스는 잘못에 대한 시정은 그 이상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본다. (X)
- [21년 10월] 노직은 과거의 상황이나 행위는 사물에 대한 현재의 응분의 자격을 발생시킬 수 없다고 본다. (X)
- [20년 10월] 롤스는 분배 정의를 실현하여 자연적 우연성을 없애야 한다고 본다. (X)
- [20년 10월] 노직은 사회가 협동 체제가 아닌 개인 간 자발적 교환 체제라고 본다. (O)
- [19년 4월] 롤스는 천부적 우연성이 배제된 상황에서 정의의 원칙에 합의해야 한다고 본다. (O)
- [20년 9월] 롤스는 천부적 재능의 불균등한 분포는 부정의하기에 보상되어야 한다고 본다. (X)
- [20년 9월] 롤스는 정의의 일차적 주제는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기본 구조라고 본다. (O)
- [윤사 19년 10월] 롤스는 정의의 원칙은 권리 배분이 아니라 이익 배분의 근거라고 본다. (X) -> 둘다
- [21년 7월] 왈처는 모든 사회적 가치를 분배 원리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고 본다. (O)
- [23학년도 수능] 롤스는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한 소득은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고 본다. (O)
- [23학년도 수능] 롤스는 기본적 자유들이 상충하더라도 그 기본적 자유들은 서로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본다. (X) -> 제한적 조정 필요
- [23학년도 수능] 노직은 자신의 노동을 투여하지 않고 취득한 수유물에 대한 정당한 소유 권리는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. (O)
- [23학년도 수능] 롤스와 노직은 능력에 따른 분배는 정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본다. (O)
- [24학년도 6월] 롤스는 사유 재산을 소유할 권리는 제1원칙에 의해 평등해야 한다고 본다. (O)
- [24학년도 6월] 롤스는 천부적 능력이 분배 몫에 미치는 영향을 경감시킬 필요는 없다고 본다. (X)
- [21년 4월] 노직은 자연적 능력을 사회의 복지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여겨야 한다고 본다. (X)

- [21학년도 수능] 노직은 자신의 노동이 투입되지 않은 결과물에 대해서도 소유할 권리가 허용될 수 있다고 본다. (O)
- [22학년도 수능] 노직은 도덕적 공과에 따른 소유 권리의 불평등은 정의롭다고 본다. (X)
- [22학년도 수능] 롤스는 기본적 자유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각 개인에게 평등해야 한다고 본다. (X) -> 기본적 자유는 절대적 X 제한 가능 O
- [22년 3월] 롤스는 개인이 사회적 협동의 공정한 체제의 규칙에 따라 얻은 모든 것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고 본다. (O) -> 사회적 ~ 규칙 : 정의의 원칙
- [22년 7월] 롤스는 개인이 정당하게 취득한 재산에 대한 소유 권리를 가진다고 본다. (O)
- [23년 3월] 노직은 도덕적 공과에 따른 분배가 분배적 정의에 위배된다고 본다. (O)
- [23년 3월] 노직은 취득과 이전의 원칙을 통해서만 재화가 양도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. (O) -> 강제, 억압 등
- [19년 10월] 노직은 모든 재화는 취득과 이전의 원리에 의해서만 획득된다고 본다. (X)
- [19년 10월] 롤스와 노직은 모두 분배 정의는 자유 경쟁 시장 체제에서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. (O)
- [18년 3월] 아리스토텔레스는 기하학적 비례로써 시정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본다. (X)
- [18년 3월] 롤스는 공리의 원리보다 기회 균등의 원리를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. (O)
- [18년 4월] 롤스는 노직에게 부정의를 바로잡기 위한 국가의 재분배가 허용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. (X)
- [18년 4월] 노직은 롤스에게 개인들의 소유 권리가 역사적인 과정을 거쳐 형성됨을 간과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. (O)
- [20학년도 수능] 롤스는 사유 재산권이 정의 원칙에 따라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고 본다. (O)
- [20학년도 수능] 노직은 자연물에 대한 최초 취득의 자유는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. (X) -> ex. 오아시스의 사유화...
- [20년 7월] 롤스는 최소 수혜자의 복지를 위해 자산 소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본다. (X) -> 기본권 제한은 가능하지만, 복지를 위해서는 no
- [19학년도 6월] 롤스는 공정한 기회균등 원칙이 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한다고 본다. (O)
- [19학년도 6월]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배와 교환의 정의는 모두 비례의 동등함을 따라야 한다고 본다. (O)
- [23학년도 9월] 롤스는 정의 원칙 수립 시 당사자 간 합의는 가설적이고 비역사적이라고 본다. (O)

- [23년 7월] 롤스는 정의의 일차 주제가 사회 제도가 권리를 배분하고 사회협동체의 이익을 분배하는 방식과 관련 있다고 본다. (O)
- [23년 7월] 롤스는 정의가 실현된 질서 정연한 사회는 공적 정의관으로 규제된다고 본다. (O)
- [23년 7월] 마르크스는 롤스와 달리 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하는 분배 원칙이 부당하다고 본다. (O)
- [22년 10월] 롤스는 기본적 자유는 다른 기본적 자유와 상충될 때 제한될 수 있다고 본다. (O)
- [22년 10월] 롤스는 차등의 원칙은 법과 정책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사적 거래에도 직접 적용된다고 본다. (X) -> 오로지 체제개선!
- [20년 4월] 노직은 소유권이 오직 취득과 이전의 정의의 원리에 의해서만 부여된다고 본다. (X)
- [23년 4월] 롤스는 재능과 동기가 유사하다면 성공의 전망도 유사해야 한다고 본다. (O) -> 기회 균등의 원칙
- [23년 4월] 노직은 사회에 유용한 정도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분배는 부정의하다고 본다. (O)
- [20학년도 6월] 롤스는 경제적 불평등의 극복을 위해 기본적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고 본다. (X) -> 제1원칙인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2원칙인 기회균등의 원칙보다 우선시
- [20학년도 6월] 롤스는 분배 절차의 공정성으로 분배 결과의 정의가 보장된다고 본다. (O)
- [21학년도 6월] 노직은 사회적 유용도나 도덕적 공과에 따른 분배의 원리는 정형적이라고 본다. (O)
- [21학년도 6월] 롤스는 정당한 분배는 선천적 재능에 비례하는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본다. (X)
- [24학년도 9월] 롤스는 차등의 원칙이 더 큰 재능의 소유자에게 유익할 수 있다고 본다. (O) -> 차등의 원칙은 모두에게 이익 -> 더큰 재능의 소유자에 이득
- [24학년도 9월] 롤스는 재산의 평등한 분배가 정의 원칙에 의해 허용될 수 있다고 본다. (O) - 롤스는 모두에게 이익 X : 평등한 분배 / 모두에게 이익 O : 불평등 분배 허용
- [24학년도 9월] 노직은 국가가 자유롭게 체결된 계약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고 본다. (O)
- [23년 10월] 롤스는 구성원들의 모든 이익은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에 의해 평등하게 보장된다고 본다. (X) -> 차등의 원칙에 의해
- [23년 10월] 노직은 취득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도 자연적 자산에 대한 개인의 배타적 권리는 인정된다고 본다. (O) -> 자연적 자산 = 운
- [24학년도 수능] 노직은 각 개인에게 소유물을 분배하는 최소 국가만이 정의롭다고 본다. (X)

- [19년 3월] 벤담은 형벌이 사회적 선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본다. (O)
- [19년 3월] 칸트는 형벌이 사회적 선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본다. (X)
- [19년 3월] 베카리아는 형벌이 사회적 선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본다. (O)
- [20년 4월] 베카리아는 형벌이 사적 보복이 아닌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본다. (O)
- [20년 10월] 베카리아는 사회 계약에 생명의 희생이 포함될 수 없다고 본다. (O)
- [20년 10월] 베카리아는 생명을 빼앗을 권리를 일반 사회에 양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. (O)
- [20년 10월] 베카리아는 형벌의 목적이 범죄의 피해를 원상태로 회복하는 것이라고 본다. (X)
- [20년 10월] 칸트는 살인자가 생득적 인격성을 상실했기에 사형을 당해야 한다고 본다. (X)
- [22년 4월] 칸트는 벤담에게 모든 위법 행위자에 대하여 형벌이 부과되어야 함을 간과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. (O) -> 벤담은 사회이익에 따라 형벌 여부 달라짐.
- [21년 4월] 루소에게 사형은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적 형벌이다. (O)
- [23년 7월] 베카리아는 벤담에게 사형이 사회 계약에 근거해서 집행되어야 함을 간과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. (X)
- [19년 4월] 칸트는 보복법만이 형벌의 질과 양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. (O)
- [23년 3월] 루소는 베카리아에게 사형이 사회 계약을 통해 성립될 수 없지만 정당한 형벌임을 간과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. (X)
- [23년 3월] 루소는 칸트에게 형벌이 사회의 선을 위한 수단으로서 가해질 수 있음을 간과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. (O) -> 칸트에게 형벌은 범죄자 위해서
- [18년 4월] 루소는 형벌이 범죄자가 시민에게 입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고 본다. (O)
- [21년 10월] 루소는 살인범이 생명권을 사회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. (O)
- [21년 3월] 칸트는 살인자가 물권의 대상이 아님은 타고난 인격성 때문이라고 본다. (O)
- [23년 4월] 칸트는 살인을 직접 저지른 사람만이 사형 선고의 대상이라고 본다. (X) -> 살인을 명령한 자
- [24학년도 6월] 베카리아는 루소에게 살인자에게 사형 이외의 형벌이 부과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. (X)

- [24학년도 6월] 루소는 베카리아에게 사회 전체를 대표하는 입법자에게만 형벌이 있음을 간과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. (X) -> 강조한다고 비판
- [22년 10월] 루소는 개인이 사회 계약으로 자기 생명을 처분할 권리를 갖는다고 본다. (X) -> 국가 아니고 개인
- [22년 10월] 칸트와 루소는 살인범이 사회 성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되어야 한다고 본다. (O)
- [24학년도 9월] 칸트는 형벌 자체가 범죄자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필요악이라고 본다. (X) -> 필요악은 벤담
- [24학년도 수능] 베카리아는 법이 살인을 금지하므로 법에 의해 살인하는 형벌은 부당하다고 본다. (O) -> 법의 이름으로 하는 살인X
- [21년 10월] 아리스토텔레스는 로크에게 국가는 가족과 달리 선한 목적을 추구함을 간과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. (X)
- [윤사 17년 10월] 롤스는 국가의 최우선적 과제가 국민 복지 실현이라고 본다. (X)
- [윤사 17년 10월] 롤스는 국가에 대해 구성원인 국민이 저항할 수 있다고 본다. (O)
- [윤사 17년 10월] 롤스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달리 국가가 시민의 행복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본다. (X)
- [22학년도 6월]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무사 공평한 재판관이 없다고 본다. (O)
- [22학년도 6월] 로크는 국가가 공통된 법률에 따라 시민들 간의 분쟁을 조정해야 한다고 본다. (O)
- [22학년도 6월] 로크는 국가가 자국민을 침해한 외부인들을 처벌할 권력을 지닌다고 본다. (O)
- [22학년도 6월] 로크와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두 시민은 자신이 속한 국가에 대해 정치적 의무를 지닌다고 본다. (O)
- [23년 4월] 홉스는 루소에게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도 자기 보존의 욕구를 가짐을 간과한다고 비판 할 수 있다. (X) - 강조 / 제1법칙
- [윤사 17학년도 9월] 흄은 국가에 대한 복종의 의무는 오직 국가로부터 얻는 이득에 유래한다고 본다. (O)
- [윤사 17학년도 9월] 흄은 국가에 대한 복종을 결과와 무관하게 지켜야할 의무라고 본다. (X)
- [윤사 17학년도 9월] 로크는 국가에 대한 기본권의 침해를 저항권의 근거로 본다. (O)
- [22년 7월] 로크는 개인들이 자신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생성하기 위해 국가를 수립했다고 본다. (X) -> 권리 생성X

- [23학년도 6월] 홉스와 로크는 모두 공권력이 형성된 이후에 자연권 보호는 개인만의 책임이 아니라고 본다. (O)
- [22학년도 수능] 로크는 인간이 공동체를 결성하고 공동의 재판관을 설정함으로써 국가 상태에 들어간다고 본다. (O)
- [22년 4월] 로크는 국가가 외부인이 그 구성원에게 가한 침해를 처벌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. (O)
- [21년 4월] 로크는 개인이 각자가 가진 자연법의 집행권을 포기하여 그것을 공동체에 양도하는 곳에서만 정치 사회가 존재한다고 본다. (O)
- [22학년도 9월] 로크는 국가가 시민 모두에게 동등한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본다. (O)
- [24학년도 6월] 홉스는 자연 상태는 생명과 자유를 빼앗길 수 있는 불의가 존재한다고 본다. (X) -> 불의 자체 X
- [24학년도 6월] 홉스는 주권자는 평화와 공동 방위를 위해 국민의 힘과 수단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. (O)
- [23년 3월] 홉스는 공통 권력이 없는 곳에서는 정의나 불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. (O)
- [23년 3월] 로크는 개인의 재산 보존은 시민 사회의 주된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본다. (X)
- [22년 10월] 홉스는 모든 국민은 주권자가 행하는 행위와 판단의 본인이 된다고 본다. (O)
- [22년 10월] 홉스와 로크는 모두 자연 상태에서는 준수해야 할 규범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. (X) -> 자연법
- [23학년도 9월] 홉스는 루소에게 국가 구성원의 생명권 보장이 국가의 목적임을 간과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. (X)
- [23학년도 9월] 루소는 홉스에게 국가 구성원은 법을 따르는 동시에 제정하는 자임을 간과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. (O) -> 홉스는 주권자가 제정
- [23학년도 수능]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개인은 재산권 뿐만 아니라, 타인이 자연법을 위반한 것을 판단하고 처벌하는 권력을 가진다고 본다. (O)
- [23학년도 수능]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분쟁 발생 시 모든 당사자는 재판관이 된다고 본다. (O)
- [23학년도 수능] 홉스는 개인이 자연 상태에서의 불의를 피하려고 계약을 맺는다고 본다. (X)
- [23학년도 수능] 로크와 홉스는 모두 시민은 주권자로서 동등한 자유와 권리를 지닌다고 본다. (X) -> 홉스는 주권자가 왕.
- [18년 10월] 롤스는 사회 구조와 제도가 정의롭다면 그것에 따라야 한다고 본다. (O)
- [18년 10월] 롤스는 불복종이 오직 시민들 간의 자발적인 사회 협동체의 원칙이 침해될 때 행사될 수 있다고 본다. (O)

- [18년 10월] 로크는 모든 인간이 나면서부터 정부에 복종할 의무를 갖는다고 본다. (X) -> 정치사회로 들어가기로 동의할 때부터
- [18년 10월] 로크는 복종의 의무가 개인의 선택과 무관하게 발생한다고 본다. (X) -> 명시적, 묵시적 동의!
- [23년 7월] 홉스는 시민은 안전과 평화를 위해 자기 생명권을 국가에 양도한다고 본다. (X) -> 생명권 제외 양도
- [23년 3월] 싱어는 시민 불복종의 목표에 동물의 이익 옹호가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. (O)
- [21년 10월] 소로는 시민 불복종에 앞서 정부의 법 개정을 기다릴 필요는 없다고 본다. (O)
- [21년 10월] 소로는 국민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법보다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길러야 한다고 본다. (O)
- [21년 10월] 싱어와 롤스는 모두 시민 불복종이 다수결 원칙에 근거하여 행해져야 한다고 본다. (X) -> 싱어는 개인도 OK
- [21년 3월]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입헌 체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행위라고 본다. (O)
- [21년 3월] 롤스는 소수자 투표권 제한 정책이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. (O)
- [20학년도 9월] 롤스에게 시민불복종은 민주 헌법의 의도에 어긋나는 항거이다. (X)
- [22학년도 6월]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개인의 이익이 아닌 집단의 이익에 근거해야 한다고 본다. (X) -> 공유된 정의관
- [22학년도 6월]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사회의 기본 구조가 아주 부정의하면 성립할 수 없다고 본다. (O) -> 혁명
- [23년 7월] 싱어는 시민 불복종이 보편적인 법치 원리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본다. (X) -> 비폭력, 처벌감수 : 민주주의 원리 존중
- [23년 7월] 싱어는 시민 불복종이 다수를 설득하기보다 강제하기 위한 시도라고 본다. (X)
- [17년 7월] 니부어는 사회 집단 간의 관계는 윤리적이기보다는 정치적이라고 본다. (O)
- [20년 7월] 소로는 시민 불복종은 합법적 방법이 실패했을 때에만 행해야 한다고 본다. (X)
- [21학년도 수능]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정의감에 의해 상당히 규제되는 사회에서만 성립한다고 본다. (O)
- [23년 3월] 롤스는 시민 불복종으로 인해 준법의 의무와 부정의에 저항할 의무가 상충할 수 있다고 본다. (O)
- [23년 3월] 롤스는 시민 불복종은 민주 사회의 시민들이 갖는 양심적인 신념들 간의 불일치를 줄일 수 있다고 본다. (O)

- [22학년도 수능] 롤스는 시민 불복종은 합법적인 정치적 반대와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본다. (X) -> 최후의 수단!
- [19학년도 6월] 소로는 법률과 양심을 시민 불복종의 정당성 판별 근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. (X) -> 법률 X
- [19년 4월]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전투적 행위와는 구분되며,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법에 대한 불복종을 나타낸다고 본다. (O)
- [23학년도 6월] 롤스는 부정의한 법을 변혁하고자 불가피하게 다른 법을 위반하는 시민 불복종을 정당화한다. (O)
- [20학년도 수능] 롤스는 공유된 정의감에 호소하는 시민 불복종이 공공적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. (X)
- [20학년도 수능] 롤스는 민주적 권위에 맞서는 모든 위법 행위는 체제의 안정을 해친다고 본다. (X)
- [23학년도 9월] 롤스는 합법적인 민주적 권위에 대한 시민 불복종은 가능하다고 본다. (O)
- [22년 10월] 롤스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시민 불복종에 대한 보복적인 억압이 있을 수 없다고 본다. (O)
- [22년 10월] 싱어는 다수가 공유하고 있는 정의관을 대상으로 시민 불복종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. (O)
- [23학년도 수능] 싱어는 다수의 견해를 진정으로 반영한 법에 대한 시민 불복종은 불가능하다고 본다. (X) -> 다수의 견해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님
- [24학년도 6월] 싱어는 시민 불복종은 민주주의적 결정을 복원하려는 시도라고 본다. (O)
- [24학년도 6월] 롤스는 시민 불복종은 정의로운 법을 제정할 절차가 불완전하여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. (O)
- [24학년도 9월] 로크는 국가에 양도하지 않은 시민의 권리는 보장될 수 없다고 본다. (X) -> 생명권 등
- [23년 10월] 로크는 개인과 국가는 상호 간 이익을 전제로 사회 계약을 맺는다고 본다. (X)
- [23년 10월] 홉스는 사회 계약으로 자연 상태에서의 재산권이 보장된다고 본다. (X) -> 홉스는 자연상태에서 재산권 개념 X
- [23년 10월] 로크는 사회 계약으로 자연 상태에서의 재산권이 보장된다고 본다. (O)
- [24학년도 수능] 홉스는 국가의 통치자가 사회 계약을 위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. (X)
- [24학년도 수능] 홉스는 국가가 부재하는 곳에서는 각자의 소유권도 부재한다고 본다. (O)

4. 과학기술과 윤리

- [21년 4월] 요나스는 책임의 범위를 설정할 때 불확실한 결과를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. (X)
- [19년 7월] 요나스는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은 책임져야 하는 당위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본다. (O)
- [19년 7월] 요나스는 미리 사유된 위험으로부터 새로운 윤리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. (O)
- [22학년도 수능] 요나스는 인간이 져야 할 책임은 자신이 가진 권력에 비례한다고 본다. (O)
- [19년 10월] 하이데거는 기술은 자연이 지닌 내재적 가치를 중시한다고 본다. (X)
- [19학년도 9월] 요나스는 부모가 자녀에 대해 책임지는 것처럼 자연에 대해 책임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. (O)
- [19학년도 9월] 요나스는 자연에 대한 주인 의식을 토대로 자연에 책임지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본다. (X)
- [24학년도 9월] 야스퍼스는 기술은 인간이 설정한 목적의 실현을 위한 공허한 힘이라고 본다. (O)
- [20학년도 6월] 테일러와 레오폴트는 칸트에게 인간은 다른 생명체보다 우월한 지위를 지니지 않음을 간과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. (O)
- [23년 4월] 테일러와 싱어 모두 인간을 위한 자원으로 동물을 활용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고 본다. (O)
- [22년 7월] 레오폴트는 집합적 유기체로서의 대지는 효용 창출을 위한 자원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본다. (X)
- [24학년도 6월] 칸트는 이성적 삶의 주체만이 생명체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지닌다고 본다. (X)
- [24학년도 6월] 칸트와 테일러, 레오폴트는 어떤 생명체의 존속은 그 생명체의 본래적 가치에 의해 정당화된다고 본다. (X) -> 레오폴트 : 생명 공동체의 통합성(아름다움) 위해
- [19학년도 수능] 레건과 레오폴트는 인간성을 해친다는 것이 동물 학대가 그른 주된 이유는 아니라고 본다. (O)
- [22학년도 수능] 테일러와 레건은 동물이 인간의 가치 평가에서 독립적인 가치를 지닐 수 있다고 본다. (O)
- [22학년도 수능] 레건과 테일러 모두 인간에 대한 인간의 의무로 환원되지 않는 의무가 있다고 본다. (O)
- [20년 10월] 싱어는 테일러에게 유정성이 있는 존재만이 도덕적 지위를 지님을 간과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. (O)

- [20년 3월] 테일러는 생태계를 통제하려는 시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. (O)
- [22년 4월] 테일러는 칸트와 달리 인간이 무생물과 관련해서는 의무를 지니지 않는다고 본다. (O) -> 칸트는 무생물에 대해서도 간접 의무
- [19학년도 6월] 칸트는 자연 체계 내에서의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같이 대지의 산물로서 평범한 가치를 가진다고 본다. (O)
- [19학년도 6월] 칸트는 도덕적, 실천적 이성의 주체로서 인간은 자연 안에 존엄하며 절대적 가치를 지닌 존재라고 본다. (O)
- [19학년도 6월] 레오폴트와 싱어는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모든 생명체를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본다. X
- [19학년도 6월] 레오폴트와 싱어는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모든 생명체를 동일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. O
- [20학년도 수능] 레건은 칸트에게 어떤 존재를 목적 그 자체로 보는 근거가 이성이 아님을 간과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. (O)
- [18학년도 9월] 아퀴나스는 다른 동물을 단지 수단으로만 취급해도 된다고 본다. (O)
- [20년 4월] 레건은 성장한 포유동물은 결코 인간을 위한 자원으로 대우받아서는 안 된다고 본다. (O)
- [20년 4월] 싱어는 성장한 포유동물은 결코 인간을 위한 자원으로 대우받아서는 안 된다고 본다. (X)
- [20년 4월] 테일러는 인간이 생명체에 해를 끼쳤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적 정의의 의무를 지닌다고 본다. (O)
- [22년 10월] 싱어는 인간을 위해 동물에게 친절한 것은 종차별주의라고 본다. (O)
- [18년 10월] 테일러와 레오폴트는 고유의 선을 지닌 존재가 인간과 독립된 가치를 가진다고 본다. (O)
- [18년 10월] 레오폴트는 인간이 동식물을 인간을 위한 자원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본다. (O) -> 생명 공동체 구성원의 경제적 가치도 인정
- [16학년도 9월] 싱어는 채고 감수 능력이 동물의 이익 고려를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라고 본다. (O)
- [19년 7월] 테일러와 레오폴트는 도덕적 존중의 대상을 인간 개체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. (O)
- [23년 10월] 테일러는 인간이 이성적 존재와 동식물에게만 신의 의무를 져야 한다고 본다. (X) -> 신의 의무는 야생동물을 기만하면 안 된다는 의무.
- [24학년도 수능] 싱어는 채고 감수 능력이 도덕적 행위자임을 판별하는 결정적 기준이라고 본다. (X)
- [24학년도 수능] 레오폴트는 생태계뿐만 아니라 개별 생명체도 도덕적 고려의 대상일 수 있다고 본다. (O)

5. 문화와 윤리

- [21학년도 9월] 플라톤은 예술 작품은 아름다움과 추함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야 한다고 본다. (X)
- [21학년도 9월] 플라톤은 미적 가치는 무질서한 리듬과 운율 안에서 존재할 수 없다고 본다. (O)
- [20학년도 9월] 주희는 시를 그 사회의 도덕성을 엿볼 수 있는 거울이라고 본다. (O)
- [23년 10월] 순자는 음악이 도리에 맞으면 본성을 확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. (X)
- [24학년도 수능] 칸트는 미적 판단과 도덕 판단은 모두 이해 관심에 근거해야 한다고 본다. (O)
- [24학년도 수능] 칸트는 미적 판단의 대상인 예술은 그 자체로 자율성을 지닐 수 없다고 본다. (X)
- [24학년도 수능] 칸트는 미적 판단 능력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도덕적 능력에 종속된다고 본다. (X)

- [22학년도 6월] 볼노브는 인간은 거주함으로써만 본래적 의미의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본다. (O)
- [22학년도 6월] 볼노브는 진정한 집에는 가족이 필요하다고 본다. (O)
- [21학년도 수능] 베블런은 경쟁적인 비교 성향은 자기 보존 본능보다 강력한 경제적 동기라고 본다. (X) -> 자기 보존 본능 제외 강력한 경제적 동기
- [23학년도 9월] 짐멜은 모든 계층이 추구하는 유행의 양식은 항구적 속성을 지닌다고 본다. (X)
- [23년 10월] 베블런은 유한계급의 경쟁적인 비교 성향은 과시적 소비로 나타난다고 본다. (O)

- [22학년도 수능] 엘리야데는 세계는 성스러움이 드러나는 대상일 뿐 아니라 성 그 자체라고 본다. (X) -> 성현이 될 수 있지만 성 그자체는 아님.

6. 평화와 공존의 윤리

- [21년 10월] 하버마스는 공정한 담론을 통해 합의된 준칙은 구속력을 지닐 수 있다고 본다. (O)
- [23년 7월] 하버마스는 담론 참여의 자격은 이성적 논의 능력의 유무에 달려 있다고 본다. (O)
- [23년 7월] 하버마스는 담론 참여의 자격을 논의 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여해야 한다고 본다. (X)
- [21학년도 9월] 하버마스는 행위 규범으로서의 올바름은 비판과 논증을 통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. (O)
- [18학년도 9월] 하버마스는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실현해야 토론의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본다. (O)
- [20년 4월] 하버마스는 사회적으로 정당한 규범에 근거해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. (O)
- [24학년도 6월] 하버마스는 단론 참여자의 심의를 통해 합의된 주장은 절대적 참이라고 본다. (X) -> 오류가능성 O
- [22년 10월] 하버마스는 담론 참여자가 상호 주관적 논증을 통해 합의할 수 있다고 본다. (O)

- [21학년도 6월] 현실주의에서는 국제 관계에서 세력 균형이 평화를 영구적으로 보장한다고 본다. (X)
- [21학년도 수능] 현실주의에서는 국제 관계에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이 없다고 본다. (X) -> ex. 세력균형을 위한 정책
- [22학년도 수능] 모겐소는 국가 간 힘의 균형으로 국력 경쟁이 종식될 수 있다고 본다. (X)
- [24학년도 6월] 모겐소는 파괴된 세력 균형을 복원하는 방법은 전쟁뿐이라고 본다. (X) -> 동맹 체결, 군사비 증감 등도 있음.
- [22년 7월] 모겐소는 국제 정치에서 분쟁은 인간의 본성에서 기인할 수 있다고 본다. (O)
- [22년 7월] 모겐소는 국제 관계에서 국가 간 세력 균형은 영구적 평화를 보장한다고 본다. (X)
- [22년 7월] 칸트는 비민주적 국가에 대해서는 폭력적 개입이 허용된다고 본다. (X) -> 칸트는 방어전쟁만 허용
- [22학년도 9월] 칸트는 국제 관계에서는 국가가 유일한 행위자로 간주된다. (X) -> + 국제연맹
- [22학년도 9월] 칸트는 국제 연맹은 국가와 같은 주권적 권력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본다. (X)

- [19학년도 6월] 칸트는 국제법을 통해 국가 간 우호와 시민의 자유를 증진해야 한다고 본다. (O)
- [21년 10월] 현실주의는 인간의 본성에 근거하여 국제 관계를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. (X)
- [21학년도 9월] 칸트와 갈통은 모든 전쟁의 종식이 진정한 평화 실현의 필수 조건이라고 본다. (O)
- [23학년도 9월] 칸트는 세계 시민법이 인권 보장이 아닌 영구 평화를 위한 것이라고 본다. (X)
- [23학년도 수능] 현실주의는 경쟁 국가의 행동의 경향성을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. (O)
- [23학년도 수능] 칸트는 평화 연맹의 수립 과정에서 국가 간 합병은 배제된다고 본다. (O)

- [19학년도 9월] 싱어는 원조 대상에서 질서 정연한 사회의 빈곤한 시민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본다. (X)
- [19학년도 9월] 싱어는 원조가 인류의 공리 증진이 아닌 지구적 정의 실현을 지향해야 한다고 본다. (X) -> 반대로
- [19년 10월] 싱어는 절대 빈곤층의 처지 개선은 원조의 목적이 아니라고 본다. (X)
- [18년 4월] 싱어는 풍족한 사회에서 원조는 의무가 아닌 자선으로만 행해진다고 본다. (X) -> 싱어는 해외 원조를 자선이 아닌 의무로 봄.
- [18년 4월] 싱어는 원조의 대상은 빈곤한 사회의 개인이 아닌 사회 그 자체라고 본다. (X) -> 빈곤한 사회 아닌 고통 받는 개인으로
- [22년 3월] 싱어와 롤스는 원조할 때, 원조 대상국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. (O)
- [22년 3월] 롤스는 질서정연한 사회는 지구적 분배 정의의 원칙에 따라 원조해야 한다고 본다. (X) -> 지구적 분배 정의는 싱어의 세계 시민주의에 근거
- [21학년도 수능] 싱어는 원조 주체의 경제력에 대한 고려 없이 원조가 실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. (O)
- [21학년도 수능] 롤스와 싱어 모두 다른 나라에 빈곤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은 필연적으로 원조의 의무를 정당화한다고 본다. (X) -> 롤스는 X : 정치, 사회적 제도 결함
- [21년 10월] 싱어와 롤스 모두 원조의 주체를 민주적이면서 부유한 국가로 한정한다. (X) -> 롤스 : 빈곤해도 질서정연하면 OK / 싱어 : 빈곤한 국가 구성원도 개인으로 OK
- [23년 3월] 싱어는 원조는 원조 대상뿐만 아니라 원조 주체의 이익도 증진해야 한다고 본다. (X)
- [23년 3월] 롤스와 싱어 모두 원조 대상국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여 원조해야 한다고 본다. (O)

- [21학년도 9월] 롤스는 경제적 불평등을 규제하는 원칙이 원조의 근거가 된다고 본다. (X) -> 차등의 원칙은 해외 원조에 X
- [22년 10월] 싱어는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도 인류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원조를 해야 한다고 본다. (O)
- [22년 10월] 싱어와 롤스는 모두 원조는 주체와 대상의 친소 관계와는 무관하게 실천해야 할 윤리적 의무라고 본다. (O)
- [23년 7월] 롤스는 원조가 국가 간의 정치 문화적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. (O)
- [23년 7월] 싱어는 원조를 절대 빈곤의 감소 전망과 무관한 도덕적 의무라고 본다. (X)
- [23년 10월] 싱어는 국내 부조와 해외 원조를 의무로 규정하는 근거는 다르지 않다고 본다. (O)